

##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과의 인과적 관계

서요한<sup>†</sup>

군산간호대학교

(2018년 11월 22일 접수: 2018년 12월 18일 수정: 2018년 12월 21일 채택)

###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Resilienc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Yohan Seo<sup>†</sup>

*Kunsan College of Nursing*

*(Received November 22, 2018; Revised December 18, 2018; Accepted December 21, 2018)*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및 이들의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J소제 3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은 학업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이지만 경쟁효과인 억제효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과 관련 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학업탄력성,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간호대학생, 자기효능감

**Abstract** :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the pathway of academic resilienc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for nursing students. For this purpose, 460 nursing students from three colleges in J province were sampled for conveni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ix indexed of causal model among academic resilienc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were identified suitably. Second,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has direct effect on academic resilience,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showe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hiyohan@kcn.ac.kr](mailto:hiyohan@kcn.ac.kr))

narcissism and academic resilience, but they were competitive effects. Self-efficac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cademic resili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n effective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the academic resilience and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was suggested.

*Keywords* : Academic resilienc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환경은 의료진달체계의 변화, 새롭게 발생하는 각종 질환 및 신기술 등의 증가로 인하여 간호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직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간호교육과정 중에 습득해야 할 간호대학생은 타 학문전공자에 비해 학업에 대한 과도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1]. 간호대학생은 신입생부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엄격한 교육과정, 잦은 시험과 과제 등의 방대한 학습량, 교내실습 및 임상현장실습 참여와 간호사 면허시험 등의 부담감으로 인해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 이러한 스트레스의 지속적 노출은 반항, 좌절, 과음 등의 행동장애와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무능감 및 실패에 대처하는 노력과 능력의 저하, 학업과정 중도 포기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2]. 한편, 2000년 후반부터 진행된 대학생의 학업에 관한 긍정적인 성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는 학업현장에서 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며,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갖고, 높은 학업성취와 학교 내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성공과 그 이후 직업영역에서의 성취와도 연관성을 가지는 복합적인 자질과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3].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업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학업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며 학업성취도 및 대인관계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났다[4]. 또한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서[5],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도 학업탄력성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기에, 학업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집중하고 있다[6]. 그러나 최근 높은 취업률로 인해 간호학과에는 대

졸자를 비롯한 상이한 배경을 가진 성인들의 입학률이 증가되고 있어 다양한 연령대와 여러 학문 전공자들로 구성원의 다양성이 넓어진 추세이지만 이들의 학과 적응을 향상시키고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전공만족도 및 향후 직장생활에도 영향요인인 학업탄력성에 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업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된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대학진학으로 인해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다. 중·고교시절과는 다른 교육적 시스템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필요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안정적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를 대학 입시에만 몰두한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기능하는 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연구[7]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어릴 적 형성된 성격적 특성인 자기애적 성향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기애적 성향은 외현적자기애와 내현적자기애로 구분된다. 외현적자기애는 거대한 자기 표상, 과장된 자기존중 및 자기과시의 경향으로 요약된다. 내현적자기애 성향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인 부모의 애정 없는 양육태도로 인해 형성된다[8]. 이런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며, 가끔씩 부모가 인정해주는 부분을 크게 지각하는데, 이러한 과정의 지속적 반복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여, 병리적인 자기애가 유발될 수 있다[8].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특성을 보인다[9].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의미 있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부과한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키려

는 강한 인정욕구와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기에,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며[10], 게임중독을 보이는 공격성과 관련 있어[43], 사회적 행동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성적이나 시험불안과 같은 학업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진로결정 및 취업과 관련된 불안정도가 높은 수준이었다[11]. 이에 국내의 자기애 성향에 관한 연구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변인들과의 상관성, 매개 또는 조절인자로서 역할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11,12], 간호학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내현적 성향과 학업과 관련된 보고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애적 성향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 변인이 학업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직관되나, 직접 확인해 보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간호학전공자들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기여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 중에 하나는 대인관계능력이다. 이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임상실습에도 만족도를 높여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3]. 또한 졸업 후에는 간호사로서 대상자들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므로 양질의 간호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간호업무의 적응도를 높여 이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직장인으로서 행복감에도 기여하기에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14]. 그러나 일부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영역 중 개방성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나 과도한 학습량과 상대평가에 따른 성적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15].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자아분화[16], 자존감과 공감능력[17], 자기효능감[18] 등이다. 즉, 자아분화가 높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8]. 이러한 영향요인 중에 자기효능감은 대인불안 증세를 감소시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18].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정도를 말하며, 문제해결의 기술 또는 사회적 기술 등과 관련된 개인의 내적인 대처 자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19]. 어떠한 어

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서[19], 여러 선행연구들은 자아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대학생활의 삶의 질이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20].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에, 교육과정 중에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연구는 대학생활만족[20], 학업성취[21],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22], 진로결정 및 진로선택[23]과 상관 및 인과적 관계에 대해 규명되었으나, 자기효능감이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 등의 변인들과의 구조적인 관계에서의 역할과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본 연구가 없기에 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탄력성,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와 경로를 확인하여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이 학업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적 구조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며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안착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1.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였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이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애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 1.3. 연구가설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연구가설 2. 간호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은 학업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5.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과 관계의 관계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한국교육개발원[44]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간호학과 재학생수는 45,274명으로서 이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며, 근접모집단은 J도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 3곳의 1~4학년까지의 학생들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470명을 임의표출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절대적으로 적합한 표본크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 ML)의 경우 200개~400개 정도가 표본의 크기로 바람직하며, 200여개 표본크기를 임계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이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나거나 모델이 복잡할수록 표본의 크기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24], 이 연구에서는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4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설계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학교별로 연구조력자 1~2인의 도움으로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 작성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연구참여 시 연구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

명하였다. 설문지의 작성 도중 또는 완성 후에라도 연구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의사를 즉각 반영하고,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으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이었고, 작성 즉시 회수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총 4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자료화하기에는 부적절한 10부를 제외한 460명(97.8%)의 설문지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학업탄력성

학업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Kim[3]이 개발한 학업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9 문항, 6개요인, 즉 학습조절(5문항), 친구지지(5문항), 자기통제(6문항), 긍정적 태도(5문항), 과제 책임감(4문항), 부모지지(4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학업탄력성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28 이었다.

#### 2.3.2. 내현적자기애

내현적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Thomson[9]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Gang과 Chung[25]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내현적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5문항, 5개 하위영역이며,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부족(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목표불안정, 착취, 인정욕구, 불안정과 과민, 과민, 소심 등 총 6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Gang과 Chung[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21 이었다.

### 2.3.3. 대인관계능력

연구대상자들의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등[26]이 개발한 대인관계검사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Kim과 Kim[27]이 번안한 것을 Park 등[45]이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도구의 하위 요인은 대인관계의 5가지 영역 즉 처음관계맺기(8문항), 권리주장(8문항), 자기노출(8문항), 정서적지지(8문항), 대인 갈등다루기(8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 7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으며, 대인관계능력을 계산하였다. Park 등[45]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21 이었다.

### 2.3.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28]이 개발하고 Kim[2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 3개의 하위영역으로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효능감(12문항), 과제 난이도 선호(5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여,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Kim[29]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15로 [Table 1]과 같다.

### 2.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2.0 및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의 유의수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를 정교화하기 위해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이상치 제거는 평균에서 표준편차와의 거리를 절대값 3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의 추정방법과 입력 자료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의 정규성 분석이 필요하다. 각각의 관찰변인의 왜도 절대값 3, 첨도 절대값 10을 넘을 경우 일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변량 첨도 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면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Table 1. Reliability of scales

(N=460)

Variable	N	Cronbach's Alpha
Academic Resilience	Learning regulation	.876
	Peer supporting	.871
	Self control	.828
	Positive attitude	.871
	Task responsibility	.852
	Parents supporting	.817
Covert Narcissism	Goal instability	.921
	Exploitation	.847
	Desire for recognition	.812
	Unstable irritability	.834
	Hypersensitive	.862
Timid	.755	
Interpersonal Competence	First relationship	.817
	Claim of rights	.874
	Reveal oneself	.733
	Emotional supporting	.895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851
Self-Efficacy	Confidence	.852
	Self regulation	.860
	Prefer task difficulty	.925

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 나는 경우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게 되면 표준오차와  $\chi^2$ 값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고, 간접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SPSS를 위한 매크로 프로세스에 의한 간접효과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내현적자기애와 관련된 변인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적합지수(GFI), 간명적합지수(PGFI), 개량오차평균의 제곱근(RMSEA), 표준적합지수(NFI), 증분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터커-루이스지수(TLI), 간명적합지수(PRATIO),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간명비교적합지수(PCFI) 등을 활용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 대상자는 동의를 전제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학교의 학과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과정, 예견되는 이익과 잠재적 위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 등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한정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기밀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익명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식별할 수 없도록 하며, 모든 연구관련 자료는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할 것임을 알렸다. 셋째, 설문작성 도중이라도 참여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이후 다른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및 정규성 분석

간호대학생이 인식한 학업탄력성에 대한 인식은 2.16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습조절(2.39점), 친구지지(2.11점), 자기통제(1.93점), 긍정적태도(2.31점), 과제책임감(2.04점), 부모지지(2.23점)으로 학습조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는 3.28점으로 목표불안정(3.31점), 착취(3.85점), 인정욕구(2.62점), 불안정과민(2.89점), 과민(3.52점), 소심(3.39점)으로 나타났

다. 특히 착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인식은 2.19점으로 처음관계맺기(2.20점), 권리주장(2.37점), 자기노출(2.40점), 정서적지지(1.94점), 대인갈등다루기(2.03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자기노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은 2.55점으로 자신감(2.86점), 과제난이도선호(3.12점), 자기조절효능감(2.31점)이며, 과제난이도선호가 가장 높았다 [Table 2].

일반적으로 다변량 정규성 검증은 각각의 관측변인들에 대한 개별 정규성인 일변량 정규성 검토를 통하여 점검한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이 진행된다.

관찰변인의 왜도의 절대값 지수는 .003 ~ 0.715, 첨도의 절대값 지수는 .096 ~ .693으로 절대값 2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에 대한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 다변량 정규성은 첨도가  $c.r$ 값이 36.307(첨도지수: 100.435)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 3.2.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기초행렬이 되는 관찰변인의 상관관계 행렬은 [Table 3]과 같으며, 관찰변인 간 상관계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89$ ,  $p < .01$ ). 특히,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 중 처음관계맺기( $r = -.305$ ), 권리주장( $r = -.354$ ), 자기노출( $r = -.262$ ), 정서적지지( $r = -.263$ ), 대인갈등다루기( $r = -.256$ )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097$ ,  $p < .05$ ). 특히,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신감( $r = .614$ )이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난이도선호( $r = -.185$ ), 자기조절효능감( $r = -.362$ )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는 학업탄력성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81$ ,  $p < .01$ ). 특히, 학업탄력성 하위요인 중 학습조절( $r = -.169$ ), 친구지지( $r = -.197$ ), 자기통제( $r = -.200$ ), 긍정적태도( $r = -.477$ ), 과제책임감( $r = -.376$ ), 부모지지( $r = -.242$ )가 부적 상관관계가

Table 2. Degree of academic resilienc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N=460)

Variable	Min	Max	M ± SD	Skewness		
				Statistics	S,E	
Academic Resilience	Learning regulation <sup>112</sup>	1.00	5.00	2.39 ± 0.78	0.238	2.088
	Peer supporting)	1.00	5.00	2.11 ± 0.74	0.522	4.57
	Self control	1.00	3.83	1.93 ± 0.55	0.152	1.33
	Positive attitude	1.00	5.00	2.31 ± 0.77	0.324	2.841
	Task responsibility	1.00	4.25	2.04 ± 0.70	0.328	2.869
	Parents supporting	1.00	5.00	2.23 ± 0.82	0.623	5.455
	Total	1.00	3.66	2.16 ± 0.52		
Covert Narcissism	Goal instability	1.00	5.00	3.31 ± 0.95	-0.03	-0.262
	Exploitation	1.00	5.00	3.85 ± 0.69	-0.715	-6.258
	Desire for recognition	1.00	5.00	2.62 ± 0.67	0.205	1.793
	Unstable irritability	1.00	5.00	2.89 ± 0.86	0.162	1.416
	Hypersensitive	1.00	5.00	3.52 ± 0.86	-0.277	-2.428
	Timid	1.00	5.00	3.39 ± 0.89	-0.114	-0.995
	Total	1.00	5.00	3.28 ± 0.55		
Interpersonal Competence	First relationship	1.00	4.00	2.20 ± 0.64	0.086	0.755
	Claim of rights	1.00	5.00	2.37 ± 0.72	0.568	4.973
	Reveal oneself	1.00	4.00	2.40 ± 0.55	-0.046	-0.399
	Emotional supporting	1.00	3.57	1.94 ± 0.55	0.141	1.234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1.00	3.50	2.03 ± 0.54	0.071	0.619
	Total	1.00	3.61	2.19 ± 0.44		
Self-Efficacy	Confidence	1.00	5.00	2.86 ± 0.93	0.15	1.318
	Self regulation	1.00	5.00	3.12 ± 0.87	-0.237	-2.074
	Prefer task difficulty	1.00	4.08	2.31 ± 0.60	-0.113	-0.989
	Total	1.00	3.58	2.55 ± 0.44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chi^2$ 검증이 있지만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가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으므로  $\chi^2$ 검증은 해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통한 검증을 위해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GFI(>.90)[46], PGFI(>.50, .60)[47], RMSEA(<.10)[48]를 활용하였고, 기초모델에 대해 제안모델의 향상도를 나타내는 증분적합지수로 NFI(>.90)[49], IFI(>.90)[50], CFI(>.90)[51]를, 모형의 간결도를 나타내는 간명적합지수로 PRATIO(>.50, .60)[47], PNFI(>.50, .60)[47], PCFI(>.50, .60)[47]를 활용하였다. 검증 결과 초기 모형이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공분산을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평가결

과  $\chi^2$ 값은 957.480 (df=138, p=.000)로 부적합하지만,  $\chi^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24]. 모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를 활용한 모수변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19(과제난이도선호)와 e20(자기조절효능감)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97, e18(자신감)과 e19(과제난이도선호)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8, e10(정서적지지)과 e11(대인갈등다루기)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51, e8(권리주장)과 e11(대인갈등다루기)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5, e15(긍정적태도)와 e17(부모지지)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71, e13(친구지지)과 e17(부모지지)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65, e12(학습조절)와 e17(부모지지)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6, e12(학습조절)와 e14(자기통제)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63, e3(불안정과민)

Table 3. Verification of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1																								
2	.324***	1																							
3	.069	.272***	1																						
4	.420***	.209***	.331***	1																					
5	.553***	.380***	.237***	.669***	1																				
6	.389***	.247***	.089	.574***	.554***	1																			
7	.731***	.630***	.481***	.749***	.830***	.626***	1																		
8	-.242***	-.164***	.123***	-.267***	-.314***	-.494***	-.305***	1																	
9	-.217***	-.036	-.082	-.437***	-.394***	-.395***	-.354***	.361***	1																
10	-.231***	-.097*	.128***	-.230***	-.340***	-.358***	-.262***	.513***	.397***	1															
11	-.246***	-.276***	.075	-.106*	-.240***	-.261***	-.263***	.487***	.353***	.529***	1														
12	-.171***	-.279***	-.005	-.131***	-.247***	-.198***	-.256***	.453***	.251***	.480***	.695***	1													
13	-.297***	-.219***	.059	-.323***	-.416***	-.458***	-.389***	.731***	.665***	.784***	.814***	.747***	1												
14	.437***	.188***	.236***	.678***	.574***	.452***	.614***	-.262***	-.333***	-.218***	-.069	-.122***	-.274***	1											
15	-.247***	-.008	-.006	-.207***	-.104***	-.190***	-.185***	.329***	.166***	.136***	.139***	.189***	.250***	-.217***	1										
16	-.415***	-.136***	.124***	-.310***	-.385***	-.339***	-.362***	.503***	.384***	.463***	.506***	.480***	.621***	-.279***	.426***	1									
17	-.241***	-.036	.211***	-.030	-.109	-.151***	-.097***	.421***	.235***	.346***	.450***	.420***	.493***	.138***	.583***	.874***	1								
18	-.285***	-.046	.178***	-.135***	-.170***	-.210***	-.169***	.287***	.237***	.326***	.359***	.323***	.408***	-.104***	.291***	.584***	.550***	1							
19	-.178***	-.150***	.208***	-.091	-.290***	-.359***	-.197***	.448***	.270***	.569***	.408***	.360***	.546***	-.165***	.071	.362***	.261***	.233***	1						
20	-.267***	-.198***	.206***	-.088	-.193***	-.253***	-.200***	.448***	.262***	.430***	.527***	.479***	.566***	-.027	.241***	.576***	.562***	.574***	.421***	1					
21	-.511***	-.160***	.026	-.375***	-.495***	-.411***	-.477***	.461***	.393***	.465***	.443***	.401***	.578***	-.368***	.391***	.707***	.569***	.480***	.348***	.547***	1				
22	-.404***	-.240***	.077	-.267***	-.347***	-.318***	-.376***	.388***	.247***	.391***	.453***	.412***	.500***	-.248***	.268***	.655***	.539***	.521***	.304***	.560***	.603***	1			
23	-.252***	-.114***	.072	-.136***	-.306***	-.241***	-.242***	.281***	.232***	.311***	.328***	.276***	.381***	-.066	.152***	.410***	.373***	.245***	.355***	.330***	.514***	.390***	1		
24	-.437***	-.203***	.179***	-.252***	-.416***	-.415***	-.381***	.534***	.382***	.578***	.578***	.517***	.688***	-.228***	.329***	.759***	.658***	.716***	.620***	.788***	.810***	.759***	.645***	1	

\*  $p < .05$ , \*\*  $p < .01$ , \*\*\*  $p < .001$

1. Goal instability, 2. Exploitation, 3. Desire for recognition, 4. Unstable irritability, 5. Hypersensitive, 6. Timid, 7. Covert narcissism, 8. First relationship, 9. Claim of rights, 10. Reveal oneself, 11. Emotional supporting, 12.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13. Interpersonal competence, 14. Confidence, 15. Prefer task difficulty, 16. Self regulation, 17. Self-efficacy, 18. Learning regulation, 19. Peer supporting, 20. Self control, 21. Positive attitude, 22. Task responsibility, 23. Parents supporting, 24. Academic resilience



과 e1(소심)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57, e4(인정욕구)와 e1(소심)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54, e4(인정욕구)와 e3(불안정과민)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98, e5(착취)와 e3(불안정과민)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7, e5(착취)와 e4(인정욕구)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82, e6(목표불안정)과 e3(불안정과민)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74, e6(목표불안정)과 e4(인정욕구)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63, e6(목표불안정)과 e5(착취)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55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Modification of the model

Covariance	M.I.	Par Change
e19 ↔ e20	42.997	0.097
e18 ↔ e19	6.122	-0.080
e10 ↔ e11	54.195	0.051
e8 ↔ e11	17.503	-0.050
e8 ↔ e9	4.320	0.026
e7 ↔ e11	4.124	-0.019
e7 ↔ e10	5.960	-0.021
e15 ↔ e17	18.884	0.071
e14 ↔ e15	5.164	-0.021
e13 ↔ e17	8.865	0.065
e13 ↔ e16	6.760	-0.039
e13 ↔ e15	7.276	-0.040
e12 ↔ e17	8.274	-0.060
e12 ↔ e16	4.442	0.030
e12 ↔ e15	5.042	-0.032
e12 ↔ e14	28.119	0.063
e12 ↔ e13	6.564	-0.049
e3 ↔ e1	8.304	0.057
e4 ↔ e1	6.491	-0.054
e4 ↔ e3	28.373	0.098
e5 ↔ e2	5.959	0.040
e5 ↔ e3	15.012	-0.070
e5 ↔ e4	17.984	0.082
e6 ↔ e3	11.518	-0.074
e6 ↔ e4	7.327	-0.063
e6 ↔ e5	5.784	0.055

수정모형 결과 적합도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는데, GFI .754 → .821, IFI .738 → .816, CFI

.737 → .813로 상승하였다[Table 5]. IFI와 CFI는 .9이하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Figure 1].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 3.4.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관계

각 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691, p < .05$ ). 즉, 내현적자기애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 = -.536, p < .001$ ), 내현적자기애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642, p < .001$ ). 대인관계능력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 = 1.262, p < .001$ ),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645, p < .001$ ). 자기효능감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802, p < .05$ ).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우선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30]. 매개효과를 나타낸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억제효과를 갖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억제효과는 독립변인-매개변인(a)과 매개변인-종속변인(b)의 비표준화계수의 곱(ab)이 <0이면 억제효과에 해당한다. 억제효과 검증 결과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 간의 대인관계능력은  $ab = (-.314) * .745 < 0$ 으로 나타나 억제효과로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 간의 자기효능감은  $ab = (-.077) * .743 < 0$ 으로 억제효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 간의 자기효능감은  $ab = .486 * .499 > 0$ 으로 억제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 <가설 4>는 매개효과이나 경쟁효과인 억제효과로 나타났고 <가설 5>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나 모두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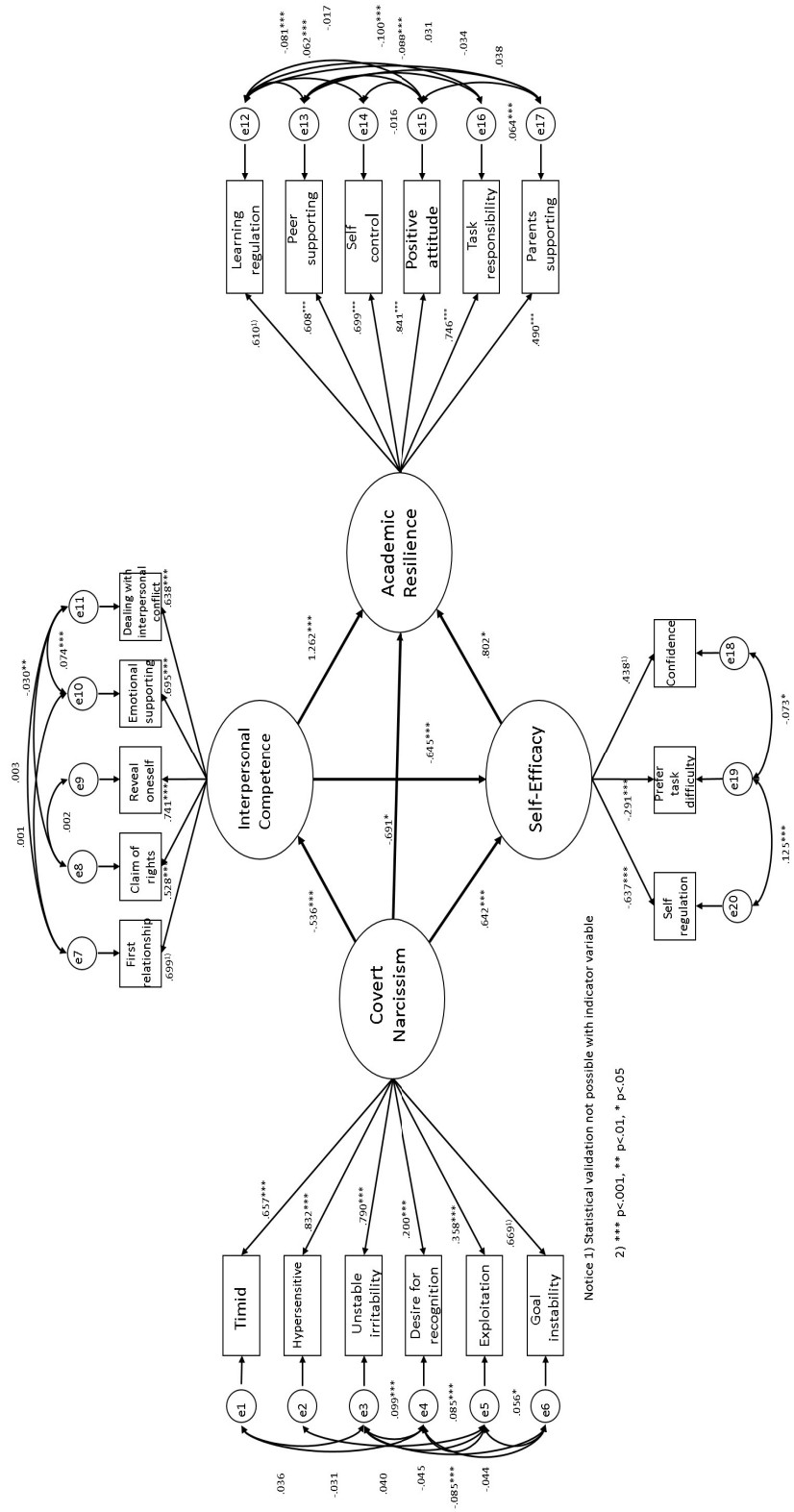


Fig. 1. Structure model.

Table 5. Comparison of fit index between default model and modified model

Classification	Criteria of fitness	Default model	Modified model	Analysis	
	$\chi^2$	> .05	1320.004 (df=164, $p=.000$ )	957.480 (df=138, $p=.000$ )	unapplied
Absolute Fit Index	GFI	> .90	.754	.821	good
	PGFI	> .50, .60	.588	.540	fitness
	RMSEA	< .10	.124	.114	good
	RMR	< .10	.063	.055	good
Incremental Fit Index	NFI	> .90	.712	.791	good
	IFI	> .90	.738	.816	good
	CFI	> .90	.737	.813	good
	TLI	> .90	.695	.743	good
Parsimonious Fit Index	PRATIO	> .50, .60	.863	.726	fitness
	PNFI	> .50, .60	.615	.575	fitness
	PCFI	> .50, .60	.636	.591	fitness

Table 6. Path coefficient and significance testing of structure model

Path	B	S.E.	$\beta$	t
Covert Narcissism→Academic Resilience	-.519	.211	-.691	-2.46*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377	.046	-.536	-8.23***
Covert Narcissism→Self-Efficacy	.413	.056	.642	7.33***
Interpersonal Competence→Academic Resilience	1.349	.296	1.262	4.56***
Interpersonal Competence→Self-Efficacy	-.591	.081	-.645	-7.26***
Self-Efficacy→Academic Resilience	.937	.466	.802	2.01*

\*  $p<.05$ , \*\*  $p<.01$ , \*\*\*  $p<.001$ 

Table 7. Bootstrapping method analysis result

Path	Effect	S.E.	Confidence Interval; 95%	
			LSL	USL
Covert Narcissism→Interpersonal Competence→Academic Resilience	-.1465	.0264	-.2009	-.0975
Covert Narcissism→Interpersonal Competence→Self-Efficacy→ Academic Resilience	-.0876	.0170	-.1273	-.0588
Covert Narcissism→Self-Efficacy→Academic Resilience	.0469	.0224	.0046	.0920
Interpersonal Competence→Self-Efficacy→Academic Resilience	.2428	.0289	.1891	.3034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현적자기에,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 변인들의 통합적인 모형을 설정하여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간호대학생 46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통해 진단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한 후 최종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1. 연구변인의 인식 수준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수준은 5점 만점 중에 평균 2.16점으로 나타났고, 학습조절(2.39점), 긍정적태도(2.31점), 부모지지(2.234점) 등의 순으로 학습조절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와 Park[4]은 3.67점, Noh[5]는 3.77점이었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고, Bae와 Park[4]의 친구지지 영역이 점수가 높았던 결과와는 상이하게 학습조절 요인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탄력성 수준이 선행연구[4,5] 결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타 학문전공자들은 학점관리, 어학능력 배양, 다양한 자격증 취득 등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은 높은 취업률로 인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은 편이어서[31], 자신의 학업적 성취를 위한 노력과 의지의 감소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지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 일 지역으로 한정하였고, 대상자들이 학기말 시험 및 임상실습을 앞둔 시점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에, 추후 지역 및 대상자의 확대와 자료수집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복 측정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업탄력성은 학생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 증진에도 기여하는 요소이므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5].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내현적자기에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28점으로, 하위요소로는 착취/자기중심성(3.85점), 과민/취약성(3.51점), 소심/자신감부족(3.3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연구가 없기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Kim과

Kang[32]의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결과 2.67점이었고, Lee[33]의 연구에서도 2.68점으로, 본 간호대학생들의 내현적자기에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에 성향은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이로서, 내현적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쉽게 우울해지며,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대인관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32,33].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서 간호대상자들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의료팀과도 협업을 해야 하기에 이러한 성향이 높다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보건의료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교육과정 중에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미연에 문제적 상태를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봉사활동, 인성교육 강화프로그램, 체험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Lee[33]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목표/불안정’ 요소 점수가 높게 나온 반면, 간호대학생들은 ‘착취/자기중심성’의 점수가 가장 높아, 학생들은 ‘기회만 된다면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경쟁 과열적인 심리상태를 보여 인간에 대한 존중, 배려 및 봉사정신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간호학문에 대한 이타적인 교육철학이 내외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적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19점으로 자기노출(2.40점), 권리주장(2.37점), 처음관계맺기(2.20점)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34]의 연구에서 3.74점(5점 만점)이었으나, 본 연구와 다른 도구로 측정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본 대상자들의 대인관계능력이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관계능력은 대상자들의 나이, 학년, 학업성적, 시기 등의 다양한 변인들과 연관성이 있기에[34], 본 대상자들의 수준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성공적인 대인관계능력의 보유는 개인에게는 행복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직장에는 조직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선행연구를[15,34] 통하여 이직 및 퇴사를 결심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직장 내 대인관계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직장 내 선배들 또는 동료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작업동기 저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과 더불어 죽음까지도 초래하는 최악의 결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신규 간호사들 사이에서 ‘태움’이라는 독특한 명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교육과정 중 대인관계능력 증진을 위한 전략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능력, 경청과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봉사활동의 활성화, 학생들 간 주제별 모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토론활동 강화, 역할극 등의 다양한 기법들의 활용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학교 내 시설 구축 및 재정비 시에는 소규모별 활동에 용이한 다수의 공간 확보가 학생들 상호 간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55점으로 과제난이도선호(3.11점), 자신감(2.85점), 자기조절효능감(2.3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35]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3.33점, Kim[36]의 연구에서는 3.42점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및 학기말 시험으로 인한 저하된 자신감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낮아진 결과로 생각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예, 다양한 비교과 영역 프로그램 실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설문조사 시기에 따른 영향요인도 배제할 수 없기에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 4.2.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보면  $-.381$ 로 나타났고,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보면  $-.511 \sim .208$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가 부적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탄력성에 부적상관이 높은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은 목표불안정( $-.437$ ), 과민/취약성( $-.416$ )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가 없기에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려우나, Weikel 등[37]은 내현적자기애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인관계 문제, 학업적 문제, 진로문제 등을 포함한 학업과 관련한 어려움이 높아지며, Ellis[38]는 학업탄력성이 진로, 진학의 목표의식 등과의 조합으로 설명하였기에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 과민과 소심 등의 요인이 학업탄력성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난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자기애적 특성을 지닌 학생들은 학업목표와 진로분야 등에 대한 상담과 자신감 형성 및 자기진작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 4.3.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 및 학업탄력성의 관계

첫째,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를 보면  $-.389$ 로 나타났고,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보면  $-.494 \sim .128$ 로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능력에 부적상관이 높은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은 소심/자신감부족( $-.458$ ), 과민/취약성( $-.416$ ) 등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감소되는 경향은 각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로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11].

둘째,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보면  $.688$ 로 나타났고,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보면  $.232 \sim .569$ 로 대인관계능력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으며, 특히, 대인관계능력에 정적상관이 높은 학업탄력성의 하위요인은 자기노출( $.578$ ), 처음관계맺기( $.534$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학업탄력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Koh와 Lee[3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대학생의 시기는 자신의 삶에 주도권을 가지고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대인관계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좌절감과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에 대인관계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하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

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내현적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보면  $-0.097$ 로 나타났고,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보면  $-0.415 \sim .678$ 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에 대해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불안정과민(.678), 과민(.574) 등이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현적자기애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는[11] 상반된 결과로 간호대학생은 잦은 시험과 팀별 또는 개별 발표수업 등 개인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이 증가하는 학과교육 뿐만 아니라 주기별로 다양한 임상실습환경에 즉각적으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자신감을 형성하여 이를 대처하고자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에 대해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415), 과민/취약성(-.385)이 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과 과민이 자기효능감을 저하시켰으며, 인정욕구 거대환상, 소심 및 자신감 부족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493$ 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보면  $-0.333 \sim .506$ 으로 나타났으나 자기효능감에 정적상관이 높은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지지(.450), 처음관계맺기(.421) 순이었으며, 반면, 대인관계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40]와는 상반된 결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높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감과 자신감이 낮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현적으로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학생들에게도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통한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관심이 요구됨을 제시한다.

다섯째, 자기효능감과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보면  $.658$ 로 다른 변인간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보면  $-0.368 \sim .707$ 로 나타났으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은 학업탄력성과의 관계에서  $.759$ 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41]가 자기효능감과 학업탄력성과의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제시하였고, 학업에 대한 효능감이 학업탄력성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예측하는 인자임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요소이기에 학생들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대한 판단력과 믿음을 갖는 것과 스스로 과제에 도전하고 성취하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4.4.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설이 채택되었으나 억제효과가 시사된 변수에 대해서는 검증은 거쳐 억제효과를 검증하였다. 한 변수가 억제효과를 나타낸 것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대인관계능력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억제하여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능력이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는 내현적자기애를 지닌 간호대학생의 학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억제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데, 대인관계능력의 억제효과가 추후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억제하여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내현적자기애를 지닌 간호대학생의 학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억제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부적인 관계에서 내현적자기애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학업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부정적인 심리상태 자체가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개인이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관련 변인의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42]. 이에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데, 자기효능감의 억제효과가 추후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로 나타날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대인관계능력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학업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의 정적인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은 자기효능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학업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처음관계 맺고,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고, 대인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강할수록 학업을 위한 학습조절, 친구지지, 자기통제, 긍정적 태도, 과제책임감 및 부모지지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므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학업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에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써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각 변인들과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본 연구목적에 충족하였고, 연구변인 간의 영향관계는 연구가설 채택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 변인 간의 인과관계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은 학업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자기애적 특성을 지닌 학생들은 학

업목표와 진로분야 등에 대한 상담과 자신감 형성 및 자기진작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특히 요구됨을 의미한다.

셋째, 대인관계능력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이나 경쟁효과인 억제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이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위축요인이 학업에 대한 의지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학교활동을 병행한다면 학업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이나 경쟁효과인 억제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심리적 위축이 학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상담과 지도를 동반한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갈등을 관리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어려운 과제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적 요소를 강조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억제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부정적 관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나, 구체적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어떠한 하부요인이 억제효과를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일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간호

대학생 전체의 수준과 비교하여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간호대학생 수준과 일반대학생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개인특성 변인, 직업 전문성과 관련된 진로 변인, 학습과 관련된 변인 등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여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수정모형을 채택하였지만, 수정모형에 대한 통계적 설명과 함께 이론적 설명이 요구된다. 또한, 내현적자기애의 측정모형을 살펴보면 인정욕구에 대한 부하량이 다른 하위변인의 부하량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하위변인의 구성 및 측정모형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1. S. H. Choi, E. K. Byun,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tress for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4, pp. 2303-2313, (2016).
2. H. Y. Gao, "The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between motivation typ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3, No.1, pp. 125-147, (2012).
3. N. R.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Scale of Academic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
4. Y. J. Bae, S. Y. Park, "Study on Predictors of Academic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3, pp. 1615-1622, (2014).
5. G. O. Noh,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Academic Resilience on the Level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2, pp. 205-213, (2017).
6. Y. M. Lee, "A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inking Development*, Vol.10, No.4, pp. 79-101, (2014).
7. J. Y. Kang, M. K. Jin,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the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3, No.3, pp. 489-509, (2018).
8. O.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Jersey : Jason Aronson, (1975).
9. S. Akhtar, J. A. Thom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pp. 12-20, (1982).
10. H. K. Koo, J. N. Kim,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2, pp. 609-636, (2014).
11. H. S. Kim, J. S. Kim,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employment anxie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2, pp. 223-244, (2015).
12. Y. J. Lee, J. H. Park,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on Somatic Symptoms : The Mediating Role of Perfectionis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7, pp. 333-356, (2016).
13. S. S. Sim,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 634-642, (2016).
- H. W. Kwak, *Effect of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flict Resolution Method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2015).
15. E. J. Oh, S. A.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 94-102, (2016).
  16. M. R. Lee, M. H. Na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6, pp. 509-517, (2014).
  17. M. S. Chung,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2, pp. 332-340, (2014).
  18. K. W. Seo, M. J. Kwon, “Influencing of Self-efficacy and Depressive symptom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6, pp. 439-449, (2017).
  19. A. Bandur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0, pp. 191-215, (1977).
  20. Y. S. Lee, S. H. Par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6, pp. 229-240, (2014).
  21. S. H. Han, “The relationship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nowledge Achievement,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5, pp. 661-671, (2018).
  22. S. M. Kim, S. Y. Park, “The Effects of Attribution Disposition,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6, pp. 3409-3421, (2014).
  23. S. Y. Lee, C. S. Jung,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Type, Career Choice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12, No.4, pp. 143-152, (2017).
  24. J. P. Woo, *Conceptual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nnarae publishing co, (2016)
  25. S. H. Gang, N. W. Ch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4, pp. 969-990, (2002).
  26.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pp. 991-1008, (1988).
  27. C. D. Kim, S. I. Kim,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skills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Group Counseling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ife Research Center, Vol.35, No.1, pp. 83-96, (1999).
  28. M. Sherer, J. E. Maddux, B. Merchandate, S. Prentice-Dunn, B. Jacobs,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Vol.51, No.2, pp. 663-671. (1982).

29. A. Y. Kim,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1, No.2, pp. 1-19. (1997).
30. K. J. Preacher, D. D. Rucker, A. F. Hayes,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42, No.1, pp. 185-227, (2007).
31. M. H. Choe,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S. J. Yoon, H. J. Park,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4, No.2, pp. 122-131, (2015).
32. H. S. Kim, S. M. Kang,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1, pp. 157-176, (2013).
33. S. H. Le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Ego-Resiliency on their Relationship Problems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2015).
34. Y. K. Yang,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5, No.2, pp. 99-108, (2018).
35. H. S. Park, J. M. Yun, S. N. Lee, S. R. Lee, M.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3, No.1, pp. 35-45, (2018).
36. M. O. Kim,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6, pp. 609-617, (2016).
37. K. A. Weikel, R. M. Avara, C. A. Hanson, H. Kater, "College adjustment difficulties and the overt and covert forms of narcissism",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Vol.13, No.2, pp. 100-111, (2010).
38. W. T. Ellis, *Against the odds: Academic Resilience among High-ability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Living in Rural Poverty*,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2010).
39. E. H. Koh, Y. Le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Strengths Use, Academic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2, pp. 271-282, (2016).
40. H. K. Lee, K. H. Lee, B. D. Suh, K. H. Kwon, "Drinking Levels,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12, pp. 1055-1067, (2017).
41. K. H. Lee,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Academic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aegu National University, (2016).
42. H. J. Choi, H. J. Shin, "Relationship among Career Stress, Career Insigh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Female College Students: Testing the Moderation Effect of Career Resilie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6, pp. 1-25, (2017).
43. J. Lim,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Boys' Game Addiction and Aggression : Focused on Mediation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1,

- pp. 688-698, (2016).
44.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Retrieved from: <http://cesi.kedi.re.kr/index>, (2017).
  45. S. Park, M. Kwon, M. Baek, N. Han, "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Journal of The Korea Ccontents Association*, Vol.14, No.5, pp. 289-297, (2014).
  46. K. G. Jöreskog, D. Sörbom,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1993).
  47. L. R. James, S. A. Mulaik, J. M. Brett, *Causal Analysis: Assumptions, Models and Data*, Beverly Hills: Sage, (1982).
  48. J. H. Steiger,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25, No.2, pp. 173-180, (1990).
  49. P. M. Bentler, D. G. Bonett,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Vol.88, No.3, pp. 588-606, (1980).
  50. K. A. Bollen,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Vol.17, No.3, pp. 303-316, (1989).
  51. P. M. Bentler,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107, No.2, pp. 238-246, (1990).